

전남도 “농업부분 WTO 개도국 지위 유지” 건의

“농업인 생존권·국민 먹거리 안전 마지노선”

전남도는 10일 우리나라 농업부문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가 유지되도록 결정해줄 것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 강력 건의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에 개도국 우대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난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여부는 국익을 우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도는 건의를 통해 “그동안 농업은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를 책임지고 국가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우루과

이라운드(UR)와 200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5년간 지속된 시장 개방 확대와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 등이 지속돼 농촌 지역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영세한 농업 구조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농촌을 볼 때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는 한국 농업의 마지노선이므로, 농업인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

해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민감품목으로 보호를 받더라도 쌀(51.3%→39.3%), 마늘(36.0%→27.6%), 고추(27.0%→20.7%) 등의 관세 감축이 불가피하다.

보조금(감축대상보조)도 낮아져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전남도의 판단이다.

이귀동 농업정책과장은 “개방 확대에 대비한 사전대책 없는 성급한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농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농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WTO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선서하는 전남도 관계자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0일 오후 전남도청 영인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의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광주서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아동 건강한 성장발달 돕는다

광주서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지난 8일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발달 돌봄을 위해 광주서구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허영란), 서광방재(대표이사 김성훈)와 협약식을 맺었다.

광주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에 맞는 영양관리, 위생관리 등 아동의 급식에 안전을 기하고, 작년에 이어 서광방재를 통해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후원을 받던 푸

드뱅크도 거부하며 신선한 식품으로 건강한 식단을 제공 한다고 하였다.

서구협의회 임마숙 회장은 “사회복지사 선서를 통해 사회복지사로서 막중한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기회로 삼고 전문적인 부분의 노무교육을 통해 노사가 협력하여 아동 돌봄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고,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돌봄을 위한 운영철학, 돌봄의 전문적 지식, 따뜻한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서은홍 기자

본사사령

▲ 허성은 순 편집국 정치부 (전남도청담당)부장

<2019년 10월 11일자>



광주시, 첫 전기 시내버스

4개 노선에 5대 운행

연말까지 총 33대 운행

광주시는 10일부터 정구 시내버스 노선에서 첫 전기 시내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시는 전기 시내버스 도입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현대자동차를 납품사로 선정하고, 전기 충전을 위해 한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전기 시내버스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반반의 준비를 해왔다.

전기 시내버스는 첨단공영차고지를 기점으로 운행하는 첨단09번, 봉선27번, 첨단95번에 각각 1대씩 운행되고 운림51번 노선에 2대가 운행되며, 이를 위해 전기버스 충전기 2대가 설치됐다.

10월말 매월공영차고지의 전기 버스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면 전기 시내버스 5대가 추가 운행되고, 연말까지 총 33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최대주 시 대중교통과장은 “광주시는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에 발맞춰 향후 전기 시내버스를 확대 도입해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오는 25일까지

가로등 현수기 일제정비

광주시는 14일부터 25일까지 걸쳐 가로등 현수기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현수기(가로등 배너)는 가로등에 세로형으로 매다는 방식의 광고물인데 불법 현수기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교차로와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설치돼 차량통행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번 일제정비에는 총 6개만 20여 명이 투입된다.

자치구 단위로 신고하지 않은 현수기, 기간이 만료됐지만 철거하지 않은 현수기, 가로등이 아닌 교통시설물에 설치된 현수기 등 불법 현수기를 정비한다

동구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광주 동구가 동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지원단 ‘젠트리피케이션’을 본격 운영한다.

동구는 지난 10일 동구청 접견실에서 변호사·세무사·노무사 9명을 법률지원단 위원으로 위촉하고, 법률지원단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률지원단은 앞으로 영세소상공인의 권리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압박, 임대차계약 해지, 권리금 문제 등 영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구,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경진대회

광주 서구가 오는 31일까지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진행한다.

혁신적이고 확산 가능한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키 위한 것.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는 어디든 참여가 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서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우수사례는 현장실사를 거쳐 일자리위원회에서 구성된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개소(2백만원), 우수상 2개소(150만원), 장려상 3개소(100만원)를 11월말에 선정할 계획이다.

남구 “소문난 맛집 30곳 선정, 지금 노크하세요”

광주 남구는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남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남도의 뛰어난 먹거리를 제공하고, 외식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하반기에 남구 맛집 30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10월 남구에 따르면 하반기 남구 맛집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가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관내 소재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등 식재료와 식사를 대신하는 음식물을 취급하는 업소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입소문이 난 음식점이거나, 친환경 웰빙 식재료 사용 및 특색이 있는 메뉴를 보유한 업소도 남구 맛집 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

북구,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시설 특별 단속

광주 북구가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10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북구는 관내 공장, 제조업체 및 민원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소를 선정하고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행위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 △기타 환경 관련 법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북구는 이번 단속 기간 중 단속 사각지대 업체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폐쇄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구, 겨울철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실시

광주 광산구가 독감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어린이, 임신부, 만75세 이상 어르신에게, 22일부터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접종기간 이후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다음 접종을 받으면 된다. 지정 의료기관은 광산구 홈페이지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행택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